

<서평>

최호림 편,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

홍 석 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에 따르면, 박물관은 인구센서스, 지도와 함께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식민주의 이념과 정책하의 관주도 민족주의의 문화적 문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통치 장치로, 식민국가가 그 영토에 기반을 두고 피식민지에 대한 지배력을 상상하는 방식을 조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앤더슨 2002: 211-212).

일반적으로 국립박물관은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 구축의 기획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광 공간이며, 문화의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어우러진 문화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국립박물관 자체와 박물관의 형태와 내용을 채우기 위한 상상은 모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앤더슨 2002: 228). 식민국가와 피식민지 사이의 연속성을 현저하게 보여준 동남아시아의 신생독립국들이 국립박물관을 통해 정치적 박물관화 작업을 온전히 계승했다는 것은 이미 놀라운 일이 아니거니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물관, 특히 국립박물관은 그 태생부터 근본적으로 정치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심층적인 수준에서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식민국 관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였

* 목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anthroh@mokpo.ac.kr).

다. 그것은 모두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국가의 진정한 권력을 드러내 보인 것은 국가 주도의 박물관 건립과 기획, 전시 등이 국가 표상과 과거 기억의 재현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이다(앤더슨 2002: 233-234).

현재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박물관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식민주의의 정치적 상속 또는 연계가 작동하는 문화적 과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박물관이 탄생하게 된 19세기 식민주의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한다.¹⁾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국가 표상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그 문화 정치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는 책이 출판되었다(최호림 2011).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특히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 국가의 표상과 기억을 되살려내어 국가 정체성과의 문화적, 정치적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이를 위한 학술적 시도를 기획,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일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관련 학계는 물론 동남아시아 일반에 관심이 있는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립박물관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 구축과 그 성격을 현지조사(fieldwork)를 통해 경험적으로(empirically) 파악하려는 이러한 학술적 시도는 동남아시아 지

1) 베네딕트 앤더슨(2002)에 따르면, 19세기 초까지 동남아시아의 식민통치자들은 그들이 복속시킨 문명의 고대 기념물이나 유적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예컨대 싱가포르를 건설한 이로 알려진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는 개인 소장용을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예술품을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특출한 식민 관료였다고 한다. 그 후로 점차 빠른 속도로 보로부두르(Borobudur), 앙코르(Angkor), 버강(Pagan) 등을 비롯한 여타의 고대 유적지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에 대한 관측과 측량, 촬영, 복원, 분석, 전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의해 주도되었던 상업적 식민정권이 퇴조하고, 식민 모국과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던 진정한 근대 식민지가 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앤더슨 2002: 229-230).

역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내연을 심화하는 데 필수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주제인식이자 경험적인 사례연구의 훌륭한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HK사업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시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계적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라는 아젠다를 수행하는 학술적 작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다.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시아는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중국, 인도, 아랍, 유럽 등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그 문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외부의 타 문화(other culture)를 자신의 고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 환경에 적합하게 변용하는 수용, 소통과 개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개해 온 지역이다. 외부세계는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상상했고 외부에서 유입된 타 문화는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수용, 변용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이 책에 고스라니 담겨 있다.

이러한 연구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 구축되는가와 그것이 외부 세계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 찾기에 나섰다. 동남아시아의 국가 정체성 구축과 국립박물관과 기념물 사이의 연계를 국가 표상과 기억이라는 두 주제를 통해 서로 통합하여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 또는 문화정치학을 정립 또는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학술적 시도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체성과 문화의 표상으로서 국립박물관과 기념관의 활용 정도의 다양성을 보여주하고자 했던 1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은 집합적 기억과 정치문화 또는 문화정치의 영역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와 접목시키고자 한 것으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에 연결시키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

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 11개국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6개국의 7개 사례를 통해 동남아시아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출발시키고 선도할 수 있는 업적을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비교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의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연구 전반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나아가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박물관 관련 다수의 그림과 사진을 싣고 있다는 점 역시 동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박물관 사이의 상호 관계 또는 상호 관련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역사학자, 미술사학자, 인류학자, 정치학자 등이 참여한 학제적, 다학문적 연구의 시도를 통해 동남아시아 박물관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다각적이면서도 다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시도 자체가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수미쌍관법의 형식을 갖추고 그에 적절한 본문을 조직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유기적 관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 역시 이 책의 돋보이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의 서장에 해당하는 최호림의 “동남아시아 박물관의 역사와 정치: 이론과 실제”는 국가 표상의 문화정치가 구현되는 현장으로서의 국립박물관이 집합적 기억의 장치로서 어떻게 기억의 문화정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1장 “박물관의 정치학: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표상된 오리엔탈리즘”에서 송승원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표상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와 국립박물관,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사이의 연속성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박물관의 정치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정치적 의미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해내고 있다.

제2장 강희정의 “머라이언과 박물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는 싱가포르에서 국립박물관과 국가 기념물이 어떻게 국가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머라이언과 박물관이 국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3장 “종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사이: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건립 과정의 문화정치”에서 최호림은 베트남 민족학박물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족 또는 종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사이에서 부유하는 ‘유목적인 정체성(nomadic identity)’, 지그문트 바우만(Zigmund Bauman)의 표현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견고한 ‘고체’와 달리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 ‘액체’ 개념에 기초한 ‘액체적인 정체성(liquid identity)’(바우만 2009)이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건립 과정에 가감 없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것이 국가 형성 과정이나 이후 종족 문제의 기획, 통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민족학박물관과 문화정책, 민족학의 변화 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

제4장 “뚜얼슬렝 학살박물관: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기억 공간”에서 부경환은 말 그대로 “미증유의 폭력을 경험한 캄보디아에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끔찍한 역사적 비극이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고 있을까”라는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그는 당시의 사건과 경험이 캄보디아 사람들 개개인에게 어떠한 형태로 기억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기억을 어떤 식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하나의 사회적 기억과 정체성을

생성해내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제3장과 제4장은 ‘국가 프레임 만들기’와 ‘기억과 회상의 정치학’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5장 “동남아시아 박물관에 표상된 국가 너머의 세계”에서 에릭 C. 톱슨은 이들 개별 논의들을 종합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국립박물관이 단지 국가의 표상과 관련을 맺고 있거나, 국가 그 자신의 내러티브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저편에 놓인 이야기나 국가 너머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음을 탐구한다. 즉 동남아시아의 박물관들이 어떻게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의 세계를 각국의 다양한 민족주의적 상상이라는 틀을 통해 표상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집합적 기억과 문화정치라는 주제를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체계 및 동남아시아 국가 너머의 외부세계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연구 성과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도가 전무했던 국내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의 묘미와 참신함, 독창성 등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이 책은 동남아시아 박물관의 특징과 의미를 다각적이고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가 동남아시아 11개국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점과 동남아시아 박물관 사례가 7개 정도로 한정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 책에서는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4개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점은 한편으로는 이 연구의 특징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국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동남아시아 박물관의 특징과 의미를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

하는 데는 오히려 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립박물관이나 국가기념물과 국가 표상의 관계, 국립박물관과 기억의 문화정치의 상호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에서 단일 연구대상으로서 제외된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등은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이는 이 책이 지니는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 정체성을 해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시도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다룬 다른 저술들과 마찬가지로, 다종족, 다민족 사회에서 지배종족 중심의 관계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Iola 2004; Lepawsky 2008 참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전체 연구의 대주제이자 핵심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질서와 외부 세계와의 관련성’ 등에 주목해서 이 책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제5장을 제외하곤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시아’를 전제로 하여, 동남아시아와 외부 세계와의 상호 관계 또는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시아’를 설명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현재 이 책의 내용이 주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이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가를 표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의 특징과 의미를 읽어내는 데, 혹은 해석해 내는 데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동남아시아 박물관과 동남아시아 외부세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서술과 분석은 부분

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의 내용으로 동남아시아 박물관과 동남아시아 국가 너머 또는 국가 외부 세계와의 관련성이나 상호 작용을 총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²⁾

또한 비교연구를 위한 비교의 단위와 비교 수준의 설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비교연구를 위해 비교의 단위와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은 개별 사례연구를 제대로 종합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예컨대 이 책의 각 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싱가포르의 경우, 머라이언을 사례로 삼아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를 다루었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머라이언에 해당되는 기념물이나 상징물을 찾아내어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닌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2)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국립박물관은 앙코르 제국 당시 앙코르 제국의 영향권에 속한 지역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기억을 갖고 있으며, 앙코르 유물 유적의 수집, 보관, 관리, 전시 등의 과정을 통해 이것들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국립박물관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외부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국 국립박물관의 전시와 스리위자야(Srivijaya) 왕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역사가 현재 국립박물관에서는 어떻게 표상되고 그에 대한 기억은 또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묻고 답하는 작업은 태국의 국가 정체성 구축과정에서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태국의 역사를 동남아시아의 시간과 공간의 매트릭스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태국사라는 일국사(一國史)를 지역적(regional), 글로벌(global) 차원으로 확장, 심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태국의 몽꿋 왕(King Mongkut)과 영국인 가정교사 애나(Anna)와의 관계를 흥미롭게 그려낸 영화 ‘애나앤킹(Anna & King)’에서 볼 수 있듯이, 태국 왕과 왕족, 그리고 영국인 가정교사를 둘러싸고 식민주의와 근대화, 주권의 문제가 태국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적 장치들 통해 어떻게 재현되고 재해석되어 재구성되는가를 밝히는 작업 역시 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태국과 외부세계와의 관련성을 중층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선 또 하나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비교하는 연구가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동남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단지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 없듯이, 다양한 연구자의 개별 관심과 그 결과물을 한 데 묶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의 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대한 다각적인 비판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국립박물관,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의 발전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³⁾

나아가 국립박물관이 아닌 다양한 민간박물관이나 지방 또는 지역 단위의 박물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이나 국가 정체성 구축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표상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고찰 역시 앞으로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국립박물관은 대중들을 위한 문화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박물관 내부자의 시각과 더불어 대중의 시각이나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었더라면 내용 면에서 현재보다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국립박물관을 사례로 삼아 동남아시아 국가 형성 또는 국가 정체성 구축 과정을 고찰한 이 책은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또는 국가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라는 기호 또는 상징으

3)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의 아시아문명박물관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아시아문명박물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시아문명에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그것은 동남아시아를 ‘열린 지역체계’로 보고 글로벌 차원에서 외부세계와 소통을 하고 그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테제나 아젠다에 부합하는 박물관 관련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로 접근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와 역사, 문화적 재현의 삼각관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만화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이면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물임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며, 이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박물관 텍스트와 박물관을 둘러싼 콘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박물관에 대한 비교연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베네딕트 앤더슨 저. 윤희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지그문트 바우만 저. 이일수 역. 2009. 『액체 근대』, 도서출판 강.
- 최호림 편. 2011.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 정치』. 이매진.
- Iola Lenzi. 2004. *Museums of Southeast Asia*. Archipelago Press.
- Lepawsky, Joshua. 2008. "A Museum, the City, and a Nation." *Cultural Geographies* 15: 119-142.